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

성경 여호수아 21:1-12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나의 모습 나의 소유(은혜의 찬양 200장)

- 1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 2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후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2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찬송가 218장)

-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말씀 읽기 여호수아 21:1-12

- 1 그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 2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 4 그핫 가족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 5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 6 게르손 자손들은 잇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 7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 9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 10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 11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 12 그 성읍의 발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본문 배경

가나안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을 것”(민 18:2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서, 성막과 예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아무 데서나 살아가도록 방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명령하셔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 성읍 48개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눈은 단지 인도적인 배려나 우연한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공동체의 질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온 땅에 흩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 첫 번째로 나누어진 성읍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받은 땅,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렙이 믿음으로 받은 땅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거룩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귀한 땅을 갈렙은 아론의 자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얻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 갈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눌 때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며, 나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레위 사람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2절)

답 민수기 35장 2절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해설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의 요청은 민수기 35장 2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민 35:2).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에게 그들이 살 성과 목초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맨 마지막으로 땅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야곱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피의 복수를 했던 레위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지파로부터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

2 레위 사람들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3절)

답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설 땅을 요청한 레위 자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민 35:8b).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레위 지파를 향한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도피성 6개를 포함해 총 48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 주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받은 땅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선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

1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받은 은혜를 어떻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나요? 가정 안에서, 또 이웃을 향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2-4 나의하나님이여

역대상 29장 17절

작곡 이진희

나의하나님이여 - 주께서 마음을 -
 감찰하시고 -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 내가 아나이다 -
 내가 정직한 마음 - 으로 이 모든 것을
 즐기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 - 기 있는 주의 백성이 -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 보오니
 심히 기쁘도 - 소이다 역대상
 이 십구장 십칠절 말씀 -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